

현장탐방 프로그램

도시의 기억과 주민의 실천을 걷다

수원 행궁동 마을만들기 사례탐방

일시 2026. 11. 11. (수) 13 시 30 분	장소 수원시 행궁동 일대 (화성 행궁광장에서 집합)	참여 한중연·고려대 20 명	소요 약 2 시간 30 분-3 시간
---	---	---------------------------	-------------------------------

행사 소개

이 프로그램은 HK 3.0 <문명전환기 K 인문학의 미래적 전회> 사업의 현장탐방으로, 수원 행궁동에서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와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실제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살펴보는 답사형 워크숍입니다. 나혜석의 삶과 활동이 남아 있는 길을 따라 걷고, 차 없는 거리와 지역상생구역, 공유텃밭과 마을환경 개선 활동의 현장을 만나며 도시의 기억, 장소성, 공동체적 실천이 연결되는 방식을 함께 탐구합니다.

함께 살펴볼 현장

- 나혜석 생가터와 자료관, 옛 학교 길에 축적된 여성 예술가의 기억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 차 없는 거리 운영과 지역상생구역 지정에서 드러나는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의 과정
- 공유텃밭, 환경 정비, 복지 활동을 매개로 확장된 주민 교류와 공동체의 일상적 실천

현장 진행자 소개

정헌목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 전공

사회문화인류학자로서 도시 공간, 주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화와 문화 변동을 연구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새로운 주거 양식의 형성과 일상, 공동체의 가능성을 현장 연구에 기반해 탐구해 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행궁동의 장소와 주민 실천을 도시인류학의 관점에서 함께 읽으며 탐방과 대화를 진행한다.

함께하는 현장 진행자 고정생(행궁마을협동조합 이사), 송종(매향사모 대표)

현장에서 함께 생각해 볼 질문

- 역사적 인물과 지역의 기억은 오늘의 마을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읽히는가?
- 주민의 일상적 실천은 제도 및 행정과 협력하며 어떤 도시 변화를 만들어 내는가?

세부 프로그램

구분	소요	주요 내용
마을탐방	60 분	나혜석 학교 길을 따라 걷는 해설 탐방 나혜석 표지석·생가터·자료관과 매향중학교를 잇는 동선에서 나혜석의 작품과 활동, 행궁동의 역사적 장소성을 살펴봅니다.
활동 공유	60 분	매향사모의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공유텃밭, 마을 환경 정비와 개선, 주민 복지 사업 등 주민 활동의 경험을 듣고 함께 질문을 나눕니다. (사례 소개 40 분 + 질의응답 20 분)

구분	소요	주요 내용
자유답사	30-60 분	행궁광장으로 돌아온 뒤 팔달문까지 이어지는 공방거리 일대를 자유롭게 답사합니다.

마을탐방 이동 경로

행궁광장 미술관 옆 공원(집결·출발) → 나혜석 표지석 → 화령전 → 나혜석 생가터 → 나혜석 자료관
전통문화관(놀이) → 북수동성당 → 매향중학교

참여 안내

- 집결 시간 및 장소: 오후 1 시 30 분 화성행궁광장 (화성행궁광장 ☞ <https://naver.me/xeAmpiR1>)
- 중식: 오후 1 시 30 분 /석식: 오후 5 시 30 분
- 현장 상황에 따라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에게는 사전 읽을거리가 제공되며, 별도의 사전 모임은 없습니다.
- 걷기 편한 신발과 날씨에 맞는 복장을 준비하고, 이동 중에는 차량과 보행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 사진 촬영이 필요할 때에는 진행자에게 알려 주세요. 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 주택 내부를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되가져가 주세요.

문의 HK 연구교수 최정은 jchoi8@korea.ac.kr